현대 일본의 정치의 특징

２１７０ＸＸＸＸ－일본어일본학과　류연X

**1. 민주주의 국가, 입헌주의 국가, 법치국가**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입헌주의 국가이며, 행정과 사법은 헌법과 법령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치국가이다.

입헌주의란? 정부의 통치를 헌법에 근거하는 원리에서 정부의 권위와 합법성이 헌법의 제한 하에 놓여있으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

**2. 일본국 헌법의 삼대 원리를 기조로 정치가 이루어진다.**

*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

**3. 정치상의권력을 나누는 권력 분립 체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삼권분립의 정치체제

1)입법권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국회를 최고의 기관으로 여기나, 행정권과 사법권에서 감시와 억제를 한다. 따라서 최고기관에 제한을 줄수있다.

입법기관과 천황과의 관계 : 일본 제국 헌법하에 형식상 입법권은 천황의 대권에 속한다고 되어있다. 제국의회에서는 천황의 입법 협찬 조직이라고 되어있어 의결을 거쳐야 한다.

2)행정권

일본 국 헌법 제 72 조　[제 5 장 "내각"](https://ja.wikipedia.org/wiki/%E6%97%A5%E6%9C%AC%E5%9B%BD%E6%86%B2%E6%B3%95%E7%AC%AC5%E7%AB%A0) 의 조문에서 [총리](https://ja.wikipedia.org/wiki/%E5%86%85%E9%96%A3%E7%B7%8F%E7%90%86%E5%A4%A7%E8%87%A3) 의 직무 규정

**제 72 조**

－내각 총리 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https://ja.wikipedia.org/wiki/%E5%9B%BD%E4%BC%9A_%28%E6%97%A5%E6%9C%AC%29) 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 국회에　보고 및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일본국　헌법　제７２조에　의거하여　정리해　보면，　헌법은 총리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 (내각 제출 법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회에서 성립하는 법안의 대부분은 내각 제출 법안 되고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내각의 권한이 국회에 우월 할 정도로 크고, 내각의 밑에 두는 [행정 기관](https://ja.wikipedia.org/wiki/%E6%97%A5%E6%9C%AC%E3%81%AE%E8%A1%8C%E6%94%BF%E6%A9%9F%E9%96%A2) 의 영향력도 매우 크다．

３）사법권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사제](https://ja.wikipedia.org/wiki/%E9%81%95%E6%86%B2%E7%AB%8B%E6%B3%95%E5%AF%A9%E6%9F%BB%E6%A8%A9) 를 부여하고있다

**제 81 조**

－대법원은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법원은 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령이나 행정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닌지 선언 할 수　있다.

－ 이 권한은 국가의 행위의 적합성에 대한 종국적으로 판단 할 권한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권한 것이다. 이러한 체제를 가리켜 [**사법 국가**](https://ja.wikipedia.org/w/index.php?title=%E5%8F%B8%E6%B3%95%E5%9B%BD%E5%AE%B6&action=edit&redlink=1) 로 불린다.

４）문제점

－　[행정권](https://ja.wikipedia.org/wiki/%E8%A1%8C%E6%94%BF) 이 [입법권](https://ja.wikipedia.org/wiki/%E7%AB%8B%E6%B3%95) 과 [사법권](https://ja.wikipedia.org/wiki/%E5%8F%B8%E6%B3%95) 보다 우월한 입장이 [권력 분립](https://ja.wikipedia.org/wiki/%E6%A8%A9%E5%8A%9B%E5%88%86%E7%AB%8B) 의 입장에서는 좋지않은　상황이다．

－　국가의 행정권이 [허용](https://ja.wikipedia.org/wiki/%E8%A8%B1%E5%8F%AF) · [허가](https://ja.wikipedia.org/wiki/%E8%AA%8D%E5%8F%AF) 권한을 가지고 국민과 지방 자치 단체를 지배하게　된다.

**４. 정치제도**

입법(국회), 행정(내각)，사법(대법원),

**1)입법 – 국회**

－헌법은 국회를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정함，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부여되는 정치적 권력은 국회가 가장 크다．

**~ 일본 국 헌법 제 41 조 일본국 헌법 제4장 국회 조문에서 국회의 지위, 입법권에 대한 규정~**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https://ja.wikipedia.org/wiki/%E7%AB%8B%E6%B3%95%E6%A9%9F%E9%96%A2) 이다.－

국권 － 국가가 갖는 지배권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국가 권력 자체（＝국가의　통치권）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중의원 의원과 참의원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양원제설명

－중의원이란？

의원 정수는 480명이며， 1994년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오랫동안 계속된 중선거구제가 바뀌어 전국각지에서 300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11블록의 비례대표구에서 180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를 병행한다.
중의원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일본의 선거를 총선거[소오셍쿄(総選挙)]라고 한다. 중의원 해산 및 임기(4년)만료에 의한 선거만을 지칭하고 특정 선거구에서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총선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의원을 해산한 경우는 중의원 해산일부터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행한다.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는 임기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행한다.

－참의원이란？

1947년 일본 헌법 제정 당시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며 중의원(衆議院)과 함께 설립됐다. 중의원은 하원, 참의원은 상원의 기능을 담당한다. 임기는 6년이며 전체 정원은 242명이다. 중간 해산이 없는 대신 3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의원 절반을 교체한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는　보통선거라고한다． 중의원에서 제정한 법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며 내각 불신임권이 없어 실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입법 과정

법률안 (법안)은 각 국회의원 및 내각에 의해 제출된다.

국회의원이 제출 한 법안

－의원 입법 또는 무사 법 (중의원 의원이 제출 한 법안)

－참조 법 (참의원 의원이 제출 한 법안)

－내각에서 제출 된 법안－ 내각 제출 법안 (정부 제출 법안)

제출 법안 중 대략 30 %가 의원 입법으로 70 %가 내각 제출 법안이다.

성립률 (제출 된 법안 중 성립 비율)은 의원 입법이 20 % 정도에 내각 제출 법안은 80 % 이상.

 따라서 성립하는 법률의 대부분은 내각이 제출 한 것이다.

이것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내각을 짜는 [의원 내각제](https://ja.wikipedia.org/wiki/%E8%AD%B0%E9%99%A2%E5%86%85%E9%96%A3%E5%88%B6)를 채택하고 있는지 귀결이다. 총리를 배출하는 여당과 내각은 협동 해 내각 제출 법안의 성립에 노력한다.

２）행정**－**내각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총리](https://ja.wikipedia.org/wiki/%E5%86%85%E9%96%A3%E7%B7%8F%E7%90%86%E5%A4%A7%E8%87%A3) 가 임명된다. 내각 총리 대신은 황제에 의해　임명된다. 내각 총리 대신은 [국무 대신](https://ja.wikipedia.org/wiki/%E5%9B%BD%E5%8B%99%E5%A4%A7%E8%87%A3) 을 임명 총리와 국무 대신의 합의체 인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 총리 대신은 국무 대신을 임의로 해임시킬 수있다. 내각 총리 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되지만, 국무 대신은 과반수가 국회의원이면된다.

일본의 내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각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자리를 비우거나 공석인 경우에 미리 정해진 국무대신이 임시로 총리대신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총리대신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는 국무대신을 부총리(정식명칭은 총리대신임시대리)라 한다. 이 규정에 의해 총리대신임시대리로 지정된 국무대신이 있고, 이 국무대신을 법령상의 명칭은 아니지만 통상 부총리라고 부른다.

３）사법 －대법원

사법권은 [대법원](https://ja.wikipedia.org/wiki/%E6%9C%80%E9%AB%98%E8%A3%81%E5%88%A4%E6%89%80_%28%E6%97%A5%E6%9C%AC%29) 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종심 법원 인 [대법원](https://ja.wikipedia.org/wiki/%E6%9C%80%E9%AB%98%E8%A3%81%E5%88%A4%E6%89%80_%28%E6%97%A5%E6%9C%AC%29) 은 장인 재판관 (대법원장)과 기타 대법원 판사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임명한다. 기타 대법원 판사는 내각이 임명한다. 대법원장 및 기타 대법원 판사 임명 후 국민 심사를 받는다. 그 후 10 년을 경과 할 때마다 더욱 국민 심사를 받는다. 대법원 판사는 법률에서 정한 나이 (70 세)에 퇴임한다.

**５. 의원 내각제- 국회와 내각의 협동**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 의원중에서 국무 총리가 선출되어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내각이 조직되어 그 내각이 국회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제도

이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한,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엄격한 [권력분립](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8118&ref=y)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의 융화' 또는 '융화를 통한 의존'의 원리에서 국회(하원)가 내각을 조직·해산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내각에 대한 국회(하원)의 법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회(하원)의 다수당 또는 연합함으로써 다수를 차지하는 연합[정당](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0316&ref=y)들이 입법부인 국회(하원)를 지배한다.

국회의 내각 신임에 의한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기초로 하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을 그 원리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의 법적인 절대우위성과 국회의 입법권 및 행정권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회와 내각은 별개의 국가기관이고, 국회는 내각의 행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각에 대한 지시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하여 내각의 '[국회해산권](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7618&ref=y)'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화와 분립을 조화시키고 있다. 이 제도는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원리로 하지만 그 실제적인 운영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양당제도가 확립되고 정당의 기율이 강한 영국에서는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의 총재 및 당 간부로 내각이 조직되고, 그 내각이 여당의원을 조종함으로써 국회(하원)를 그 뜻대로 움직인다.

따라서 사실상으로는 내각의 국회에 대한 우위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하원의 내각불신임권은 사실상 행사되지 않고 하원의 해산은 총리의 선거전략에 따라 행하여진다.

**６. 상징천황제**

헌법 제 1조 1장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의 지위에 있는 천황’ -상징으로 규정한다.

7조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법률이나 조약의 공포, 국회가 지명하 내각 총리대신의 임명, 국회의 소집 등의 국사행위의 제한된 권한을 가진다.

3조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한다, 4조 국정에 관한 권능을 전혀 갖지 않는다.

천황일가는 세습에 의해 계승되며, 만세일계라는 말이있으며, 현재 126대 천황인 나루히토 천황이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戰後) 세대 첫 일왕이다. 나루히토(德仁)천황의 즉위로 헤이세이(平成) 시대는 막을 내리고, 2019년 5월 1일부터 레이와(令和) 시대가 개막

**７．일본 55년 체제**

*요약* 1955년에 만들어진 일본의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를 말한다.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래 제1당을 유지해 오면서 일당 지배체제를 공고히 해 왔으나, 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로 인해 장기집권 체제가 종료됐다. 그러나 2012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정권을 탈환하였다.

　1955년 11월 15일, 보수정당인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합당해 자유민주당(자민당)이 탄생하였다. 이후 11월 22일, 제23회 국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이전까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대립하던 일본 사회당이 재통합되면서 집권 자민당과 만년 야당인 사회당의 55년 체제가 시작되었다. 이를 일본에서는 '55년 체제의 성립'이라고 부르는데, 이후 일본의 정당정치는 보수 자민당과 혁신 사회당의 2대 정당 대립 시대가 이어졌다.

**8. 현대 정치사 정리**

이해하기 쉬운 일본 현대 정치사 : https://www.youtube.com/watch?v=MyEgHwyxIMA&feature=share

2020, 현재 99대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가 당선되었다.